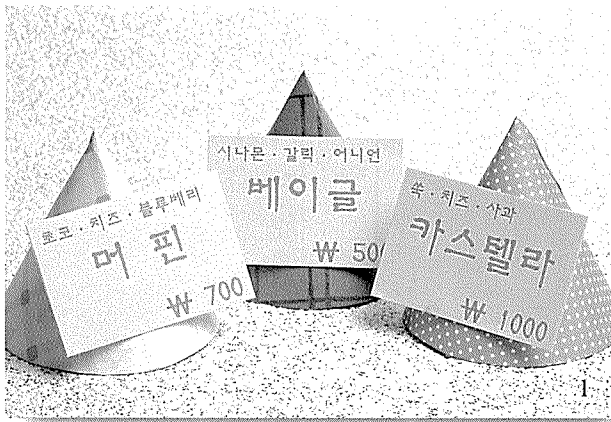


#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쇼카드 광고전략

외국 제과점들은 대부분 슈퍼마켓과 마찬가지로 모든 제품에 가격표를 붙여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도 제품마다 가격표시를 하고, 덧붙여 '오늘의 추천 제품', '타임 서비스' 등의 쇼카드(Show Card)도 만들어 고객의 쇼핑을 돕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주로 아크릴을 사용한 가격표 외에는 이렇다 할 쇼카드가 없는 형편이다. 여기서는 종이를 이용해 간단하고 저렴하게 만드는 쇼카드 제작법을 소개한다. 매장 곳곳에 툭툭 튀는 쇼카드를 배치시켜 고객들의 구매욕을 높여보도록 하자. 반드시 쇼카드용 필체가 아니라도 개성있는 서체라면 OK! 약필이라면 컴퓨터의 다양한 서체들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순한 가격 안내뿐만 아니라 우리 점포만의 색깔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진행 / 허미경 jpkjong@mbakery.co.kr>



- ① 두꺼운 도화지를 반원으로 잘라 원뿔을 만든 다음 제품과 어울리는 색상을 겹에 붙여준다. 포장지 외에 신문지나 잡지를 이용해 풀라쥬(찢어붙이기)해도 아기자기한 맛을 낼 수 있다.
- ② 사용하고 버리는 종이컵이나 찢고려져 못 쓰는 종이컵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재활용 쇼카드. 컵에 그림을 그리거나 색종이를 붙이고 양옆을 살짝 잘라준 다음 두꺼운 도화지나 골판지, 부직포 등을 끼워보자. 색다른 멋이 있다.
- ③ 삼각뿔을 안정감 있게 세우기 위해서는 전개도를 그릴 때 정면의 폭을 양 뒷면보다 1~2cm 넓게 하는 것이 포인트다. 삼각형과 원의 조화를 시도해 보는 것도 재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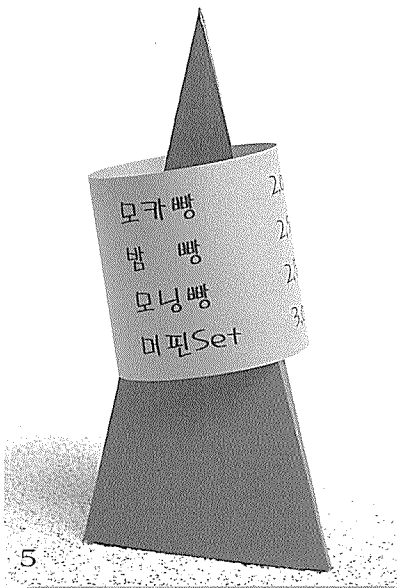


# Show Card



④ 커다란 쇼카드를 만들 때는 양재튼체나 목각체 같은 굵직굵직한 서체로 쓰는 것이 어울린다. 또한 넓은 면적을 이용해 재료에 대한 설명이나 맛있게 먹는 방법 등을 써놓아도 좋겠다.

⑤ 먼저 두꺼운 종이로 삼각뿔을 만들고, 여러 개의 원형 띠를 만들어 수시로 바꿔가며 걸쳐서 사용한다. 빵이 구워져 나오는 시간별로 원형 띠를 번갈아 끼워준다거나, 날마다 바뀌는 타임 서비스를 안내하기에 좋다.



⑥, ⑦ 쉽게 쓰러지지 않도록 튼튼한 재질로 만들거나 원통 안에 깡통, 병 등의 무거운 용기를 넣어두어야 한다. 시선이 가지 않는 구석이나 높은 선반에 배치하여 매장 구석구석까지 시선이 가게 만든다.

⑧ 케이크를 만들 때 제품 바닥에 가는 도일리도 이렇게 사용하면 훌륭한 쇼카드 재료가 된다. 광고문구로 장식된 도일리를 유리창에 붙여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보자.

